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TRANGER ON THE BEACH

가제 : 해변가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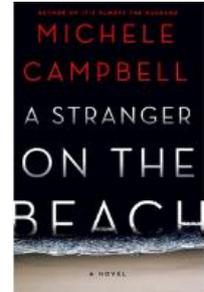
저자 : Michele Campbell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7월 2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영국, 체코, 독일 판매 완료 / 초판 10만부 발행 예정

* ‘두려움과 흡입력이 롤러코스터처럼 덮치는 이야기. 두 사람의 관점으로 이어지며 계속 그들의 말을 믿게 만드는 강렬한 스릴러’ - 「북리스트」

* ‘뜨거운 여름에 산들바람처럼 마음을 빼앗을 만한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바다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해변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 꿈이었던 캐롤라인은 남편 제이슨의 배려로 마침내 그 꿈을 이룬다. 도심에서 차로 세 시간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경관도 좋고 생활하기에도 편한 부지를 찾아 사들인 후, 캐롤라인은 결혼 전까지 꽤 잘나갔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근사한 비치하우스를 세웠다. 그녀는 남편의 생일 파티 겸 성대한 집들이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반짝거리는 새 것들로 가득 채워진 집에 먼저 들어온다. 외동딸 한나는 대학에 있고 남편은 늘 출장이며 회의로 얼굴 보기도 힘든 덕에 외로움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캐롤라인은 새 출발을 하리라 다짐한다.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일도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 집들이 파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행사였다. 오래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관찮은 사업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제이슨의 동료와 지인들이 모두 초대된 자리이니만큼 일터로 복귀하려는 캐롤라인이 맘껏 실력 발휘를 한 결과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집에 머물던 캐롤라인은 저 아래 해변에서 이쪽을 훑어져라 바라보는 젊은 남자를 발견한다. 반바지에 민소매 티만 걸친 차림새로 보아 동네 사람인 것 같았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한참을 쳐다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했다. 지역 토박이들은 휴가철에 몰려드는 관광객이나 별장을 지어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도시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캐롤라인의 집을 응시하던 그 청년은 대체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다.

대망의 집들이 날, 덴버로 출장을 간 제이슨이 집들이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온 것은 파티가 거의 시작될 즈음이었다. 잔뜩 화가 나 전화를 건 캐롤라인은 클리블랜드에

서 일이 꼬였다는 제이슨의 말을 듣고서야 20년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남편이 지명까지 헛갈릴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딸아이가 밤늦게 귀가할 때 사고라도 당할까 봐 준비해 두었던 위치추적 서비스로 남편이 뉴욕 시내 어느 호텔에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아낸 캐롤라인은 어이가 없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하는 손님들을 상대할 정신도 없는 그녀 앞에 설상가상 못 오겠다던 제이슨이 처음 보는 러시아 여자와 함께 불쑥 집에 들어선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이슨의 외도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제대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이혼해달라는 제이슨의 막무가내 요구에 더욱 경악한 캐롤라인은 지난 20년의 세월이 한 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진다. 심지어 딸 한나마저 아빠 편을 들자 캐롤라인은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달래려고 해변 술집으로 향한다. 놀랍게도 그 곳에는 며칠 전부터 집을 응시하던 청년이 있었다. 에이든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일하는 술집에서 캐롤라인은 잔뜩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다.

온 가족이 몇 대 짜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에이든은 낯시광이던 할아버지가 여러 도구들을 보관하던 헛간이 있었던 자리에 거대한 저택이 처음 들어설 때부터 공사 과정을 쫓 지켜봤었다. 집이 완성되고 집주인이 들어오고 주민들과 철저히 분리된 세상인 것마냥 떠들썩한 파티가 열렸을 때도 습관처럼 틈날 때마다 그곳을 바라보았다. 고교 시절 내내 치어리더였고 늘 남자들이 따라다녔던 미모와 매력이 마흔을 넘긴 나이에든 여전한 캐롤라인이 불행한 결혼생활의 고통을 토로하는 내내 곁을 지켜준 에이든은 안쓰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낀다. 급기야 만취해서 일어 서지도 못하는 캐롤라인을 집에 데려다 준 후,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든 캐롤라인은 간밤에 벌어진 일을 서둘러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지만 에이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다고 확신한 에이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캐롤라인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보살피리라 다짐한다. 하룻밤 사이에 캐롤라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에이든은 사실 걸모습처럼 순박한 시골 청년은 아니었다. 그는 오래 전, 절친한 친구와 그리고 당시 사귀던 연인과 삼각관계에 휘말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거리를 두려는 캐롤라인을 향한 에이든의 애정은 집착의 수준에 이르고,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이 실종된다. 최근 있었던 불화와 이혼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캐롤라인이 외도한 남편을 살해한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에이든의 차 내부에서 살인 흉기가 발견되면서 내연 관계였던 에이든이 캐롤라인을 대신해 부정한 남편을 처단했다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언론을 뒤덮는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더 큰 목적을 위해 뒤에서 모두를 조종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반전까지 교묘하고 치밀한 두뇌 싸움이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미셸 캠벨(Michele Campbell)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한 후 뉴욕 시 검사로 8년간 일하다가 소설가로 전향했다. 저서로는 미국에서 약 10만 부가 판매되고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It's Always the Husband』와 『She Was the Quiet One』이 있다.

제목 : THE MAGNOLIA INN
가제 : 매그놀리아 인
저자 : Carolyn Brown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9년 1월 15일
분량 : 286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워싱턴포스트, 아마존 차트 베스트셀러**

- * ‘사별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뛰어난 솜씨로 묘사했다. 공감할 수 있는 두 남녀에 관한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여성 소설과 로맨스 소설의 경계를 능수능란하게 넘나드는 이야기. 두 장르의 팬들 모두를 끌어모을 것’ - 「라이브러리 저널」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바텐더 졸린은 늘 그리워하던 텍사스로부터 생애 최고의 소식을 전해 듣는다. 슈가 이모가 수십 년간 운영해온 자그마한 여관을 자신에게 물려준다는 소식이었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엄마에게서 도망쳐 고향으로부터 먼 곳으로 온 졸린에게 ‘매그놀리아 인’은 유일하게 기분 좋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다. 졸린이 열 여섯 살 때 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일상을 놓아버린 채 약과 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엄마를 졸린은 어떻게든 감당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스무 살도 안 된 어린 나이로 이성을 잃은 엄마와 끊임없이 바뀌는 엄마의 남자친구들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졸린에게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이 슈가 이모와 재스퍼 이모부였고, 졸린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들과 텍사스에서 보낸 행복했던 휴가의 기억을 늘 가슴 속에 간직해 왔다. 이제 은퇴를 결심하고 새로 장만한 트레일러로 이곳 저곳을 여행하기로 결심한 이모와 이모부는 각자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에게 매그놀리아 인의 소유권을 절반씩 넘기기로 했다. 슈가 이모의 상속자가 졸린이었다면 재스퍼 이모부에게는 루벤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양숙이었고 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신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사촌과 공동 소유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졸린은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게도 곧 이 골치 아픈 사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다. 주민들 사이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한 목수 터커 말론이 그 주인공이었다.

고양이 새시와 단둘이 살면서 목수 일도 하고 이웃들이 요청하면 여기저기 손 봐주기도 하는 터커는 얼핏 보기엔 먼지 가득 낀 허름한 부츠에 작업복을 걸친 영락없는 일꾼이었지만 사실 5년 전만 해도 댈러스에서 활약하던 유능한 경찰이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사랑한 아내 멜라니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충격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밤낮 술을 마시던 그는 경찰이라는 신분마저 잊고 아침부터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 사실이 적발되어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 멜라니의 무덤을 찾아가 두 번 다시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터커는

술을 완전히 놓지 못한 채 주말만 되면 집에 틀어박혀 여전히 그리운 멜라니를 생각하며 취하곤 했다. 달라질 것 없는 무기력한 일상이 이어지던 중, 그는 매그놀리아 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빅토리아 풍의 낡은 여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새로 오픈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일감을 얻을까 싶어 새 주인인 줄린과 만난 터커는 매그놀리아 인이 지금은 허름하고 볼품없지만 잘만 손 보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챈다. 여관의 소유권 절반을 물려 받은 줄린의 사촌은 그런 사실에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터커는 마침내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다. 루벤이 가진 여관 소유권을 자신이 사들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루벤과 함께 매그놀리아 인을 운영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줄린은 이모와 이모부가 소중하게 지켜온 여관을 물려 받자마자 팔 생각부터 하는 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돈만 있다면 나머지 절반을 당장 사들이고 싶었지만 바텐더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터라 통장에 남은 여유통이라고는 100 달러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리모델링 공사를 돕기로 한 터커가 여관의 절반을 사겠다고 나선 것은 줄린에게 될 듯이 기쁜 일이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낡은 여관의 숨겨진 잠재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동업자가 되다니, 믿기 힘들 만큼 행복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줄린은 터커가 아내를 잃은 고통을 틈만 나면 술로 달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실망한다. 이기지도 못할 술과 약으로 마음의 고통을 누르려던 엄마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한 후 줄린은 알코올의 힘을 빌려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텐더로 일하면서도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겨우 새 출발을 하려는 이 중요한 시점에 술고래 하나가 또 다시 인생에 끼어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절망했던 줄린은 터커가 자신이 봐왔던 한심한 술꾼들과 같은 부류가 아님을 서서히 알게 된다. 깊은 슬픔 때문에 술을 마시긴 하지만 터커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허우적대면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줄린은 그를 향해 점점 마음을 열어간다.

작가는 각자의 고통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줄린과 터커가 뿌리 깊은 오해와 상처를 딛고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과정을 로맨스 소설 전문가다운 능수능란한 솜씨로 그려낸다. 힘든 어린 시절을 곳곳하게 이겨내고 자그마한 여관을 꽃피우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줄린에게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터커는 죽은 아내를 잊어가는 자신을 향한 원망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평생 그리워할 줄 알았던 아내의 자리를 다른 이가 대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터커, 그리고 너무 어려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것과 달리 터커에게는 손 내밀어 도와줄 수 있음을 알게 된 줄린,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두 번째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롤린 브라운(Carolyn Brown)은 90편 이상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다. RITA 어워드 결승에 오른 경력이 있으며 내셔널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북셀러 베스트 어워드 등을 수상했다. 출간된 책들은 현재까지 총 6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총 3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AFTER DARK
가제 : 다크 웹
부제 : 누구든 죽여드립니다
저자 : Holly Seddon
발행일: 2020년
분량 : 487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자신의 이름이 처리 대상 목록에 올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작가는 이 끔찍한 질문을 폭발적인 소설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 가장 흥미진진하고 용감하고 영리한 책 중 하나.’ –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길리언 맥앨리스터(Gillian McAllister)

남편 그렉이 출근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째 되는 날, 마리앤은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으로 그리움과 슬픔을 달래기로 한다. 이미 새로운 연인이 생겼고 그렉과 함께 끊자고 약속했던 담배도 손에 달고 다닐 만큼 골초가 되었지만 10여 년을 사랑했던 그렉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않은 기분이었다. 사고로 갑작스레 그를 잃었을 즈음에는 연애 초기처럼 서로를 향해 열렬하지 않았고 다툼도 늘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중학교 교사인 마리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일했던 남편, 두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소박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좋은 파트너였다. 그렉이 떠난지 1년이 되는 날 밤, 그의 노트북을 열고 이상한 아이콘을 발견하기 전까지 마리앤은 그렇게 확신했다. 별의별 이상한 일들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들이 한참 떠들던 소리를 얼핏 듣지 않았다면 그 아이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마리앤은 곧바로 알아보았다.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곳, 돈만 주면 구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 대상에는 사람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다는 ‘다크 웹’이 그렉의 컴퓨터에 깔려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동물 구호단체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선한 눈매를 가진 남자, 원리 원칙을 너무 엄격히 따져서 때로는 갑갑하게 느껴졌던 곧은 사람, 주말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해주던 자상한 남편이었던 그렉이 왜 다크 웹에 접속했을까? 마리앤은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심장이 터질 듯 두근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학교에서 철없는 학생들이 떠들어대는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그 또래가 그럴듯 몇 십 배는 과장된 내용일 거라 생각했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니 다 사실이었다. 마약, 총, 한도 끝도 없는 온갖 불법적인 물건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가진 가장 잔혹한 충동, 최악의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돈으로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음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크 웹을 둘러보던 마리앤은 ‘살인청부 시장이 해킹당했다’는 제목의 포럼을 발견한다. 돈을 주고 누군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거래 내역이 해커에게 털렸다는 설명과 함께 자신이 처리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며 링크까지 제공되어 있었다. 혹시 그렉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길에 차에 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청부살인업자에 의해 처리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리앤의 머리를 스쳤다. 떨리는 손으로 그렉의 이름을 넣어 봤지만 검색 결과가 없다는 문구만 떴다. 몇 번을 반복해서 확인하던 마리앤은 무심코 자신의 이름을 넣어본다. 잠시 후, 화면에 충격적인 문구가 뜬다. 마리앤의 생년월일과 거주지, 그리고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과 함께 ‘축하해, 누가 널 죽이려고 하네.’라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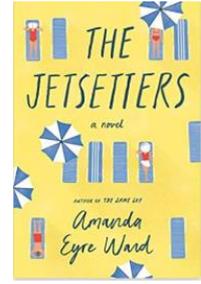
그렉의 죽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마리앤의 이야기로 시작한 소설은 다크 웹의 존재가 드러난 후부터 어두운 거래에 연루된 새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로 서서히 확장된다. 마리앤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청부업자 샘, 마리앤의 새로운 연인 노아, 그리고 미스터리한 인물 사만다와 더불어 그렉이 사망한 2017년 가을로부터 수년 전에 시작된 일들이 조금씩 베일을 벗는다. 마리앤이 회상하는 그렉과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그렉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버전으로 바뀐다. 착하고 평범한 남편이라는 가면 뒤의 이중생활은 살인과 납치, 잔인한 범죄로 가득했고, 시간이 갈수록 눈앞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떨치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의 복잡한 감정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마리앤 역시 다크 웹에서 알게 된 역겨운 진실을 토대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렉의 또 다른 삶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죽기 몇 주 전, 그렉은 왜 수년 전 헤어진 옛 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꼭 할 얘기가 있으니 연락해달라고 했을까? ‘제발 날 외면하지 마’ 라는 절박한 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미일까? 마리앤은 남편이 남긴 흔적을 살살이 뒤져볼수록 그가 악마와 다름없는 집단에 잘못 걸려든 희생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의문 앞에서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렉의 죽음은 마리앤을 지키기 위해 그가 택한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아니면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렉은 마리앤의 죽음을 원한 알 수 없는 누군가와 같은 편일까?

추악한 범죄에 가담했던 그렉은 비밀 엄수가 생명인 집단에서 핵심 정보를 누설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새어 나간 정보를 수습하기 위해 주변인 전부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협박에 시달린다. 그렉의 숨통을 조이는 집단은 그의 아내 마리앤이 말수가 줄고 예민해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친정 엄마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불만을 토로한 것까지 다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을 불신하기 시작한 이상, 그의 이중생활을 곧 알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확신했다. 한편, 마리앤은 사만다부터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 노아까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듣고 또 다시 충격에 빠지고, 얼마 후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 나타난 청부업자 샘과 대면한다. 인간의 가장 파괴적인 욕망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조명한 강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홀리 세든(Holly Seddon)은 2016년 데뷔 소설 『TRY NOT TO BREATHE』로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그 밖에도 『DON'T CLOSE YOUR EYES』, 『LOVE WILL TEAR US APART』를 발표했으며 인기 팟캐스트 ‘Honest Authors Podcast’의 공동 진행을 맡고 있다.

제목 : THE JETSETTERS
가제 : 제트족
저자 : Amanda Eyre Ward
출판사: Ballantine Books
발행일: 2020년 2월 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가족소설



* ‘박장대소하게 만들지만 영원히 마음을 울릴 소설’ - 풀리처상 수상작, 베스트셀러 『Less』의 작가 앤드류 셉 그리어

* ‘감정이 풍부하고, 진솔하고, 가차 없고, 영리한 이야기’ - 『White Fur』의 작가 자딘 리베어

식구가 많으면 복적복적 정신없이 늘 즐거울 거라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 인생을 사느라 바빠지면 일년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서로 얼굴을 보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드문 기회조차 서로 반기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일흔 하나,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샬롯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이 흐르는 집안을 멍하니 둘러보면서 세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으로 가득했던 30여 년 전의 좁은 집을 떠올린다. 큰 딸 리와 둘째 아들 코드, 그리고 막내딸 리건까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 세 남매를 혼자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면서도 샬롯은 세상을 일찍 떠난 남편이 주지 못한 사랑을 듬뿍 주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 그나마 그 노력 덕분에 세 아이들 모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만 할 뿐,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샬롯의 머릿속을 스친다. 때마침 귀를 솔깃하게 하는 광고가 샬롯의 눈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등 우승자에게는 제트족이 될 기회를 선사합니다!’ 라는 문구부터 시선을 확 끄는 광고였다. 제트기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는 속 좋은 사람들의 팔자가 부러운 건 아니지만, 큰 딸이 여섯 살일 때 아직 살아 있었던 남편까지 온 식구가 섬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것이 마지막 가족여행이었다는 생각에 갑자기 아쉬움이 몰려왔다. 게다가 세 아이들 모두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샬롯 자신도 십대 시절에 유럽을 잠시 다녀온 이후 다시는 외국에 갈 기회가 없었다. 70세가 넘는 노인에게 이야깃거리야 넘쳐나는 법이니, 흥미로운 걸로 잘 골라 써보면 어떨까? 친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와 울적한 마음에 와인 한 잔을 훌쩍이던 샬롯은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를 용기와 추진력으로 그 자리에서 크루즈 여행 티켓이 걸린 공모전에 글을 출품한다. 그리고 당당히 1등상을 거머쥘다.

샬롯이 기억하는 마지막 여행은 세 아이들의 기억에도 조각처럼 생생히 남아 있었다. 겨우 여섯 살이었던 리는 나중에 그림으로 만들어져 엄마 집 벽난로 뒤에 걸린 가족 사진을 찍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아주 비싼 카메라라고 아빠가 애지중지하던 니콘 카메라를 들고 앞에 섰을 때 엄마 주변에 둘러섰던 자신과 두 동생들은 이미 최대한 기분 좋은 척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다.

아빠는 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침실에 틀어박혀 낮에도 반나절 이상 잠만 자는 일이 많았고 아이들이 떼를 쓰고 울거나 소리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족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려고 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는 걸 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네 살배기 남동생 코드도 아빠를 무척 두려워하면서도 아빠가 공 던지기라도 하자고 하면 울 것 같은 눈을 하고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 자신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그렇게 해야 얼굴은 웃고 있지만 늘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의 기분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리는 그런 노력이 크게 힘들지 않았다. 어쩌면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절대 망치면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그 휴가는 정말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되었다.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던 것은 리였다. 먹구름 잔뜩 낀 아빠 곁에서 늘 도망가고 싶었지만 어린 동생들만 두고 갈수가 없어 손톱을 잘근잘근 씹어대며 억지로 한 방에 있었던 어린 시절처럼, 그 날 이후 리는 과거로부터 한없이 달아나고 싶었지만 트라우마처럼 머리 한 쪽에 남은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살아왔다. 어릴 때부터 빼어난 외모로 모두의 시선을 받았던 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무작정 할리우드로 향했지만 성공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 여겼던 아빠의 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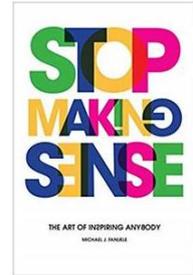
코드 역시 투자자로 크게 성공해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에 시달렸다.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곤란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고 외면하려고만 하는 자신이 코드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음에도, 그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신이 싫었다. 샬롯의 막내딸, 리건 역시 어린 두 딸을 키우는 일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아빠 없이 홀로 자신과 언니, 오빠를 돌보던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엄마가 술김에 덜컥 참여한 콘테스트에서 여행 상품권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무조건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야 한다는 엄마의 확고한 태도에 각자의 이유로 방황하던 세 남매는 일제히 엄마를 따라 나선다. 아테네까지 1등석을 타고 이동한 다음 9일간 로마를 거쳐 바르셀로나까지 최고급 유람선 '스플렌디도 호'를 타고 떠나는 크루즈 여행은 이렇게 갑작스레 시작됐다. 잡히지 않는 성공에 절망 직전에 이른 리와 동성 연인과의 사랑으로 극심한 행복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는 코드, 화가가 되려던 꿈을 접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개인적인 삶은 거의 다 잃어버린 리건은 두렵기도 설레기도 하는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여행길에 나선다. 도망갈 곳 없는 망망대해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물어두었던 비밀과 하얀 거짓말들, 그리고 미처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자의 혹은 타의로 끄집어낸다. 그리고 그제야 그토록 바라던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유쾌하고 위트가 넘치면서도 희망과 가족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생동감 넘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만다 에어 워드(Amanda Eyre Ward)는 『How to Be Lost』, 『Close Your Eyes』, 『The Same Sky』 등 평단의 호평을 받은 소설을 써온 소설가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글을 쓰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STOP MAKING SENSE
가제 : 누구에게나 뮤즈가 필요하다
저자 : Michael Fanuele
출판사: Post Hill Press
발행일: 2019년 7월 9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논리보다 열정과 감정이 우리를 훨씬 더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 – Imagine It Forward의 저자 베스 콥스톡
- *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 저자의 간단한 원칙은 지난 수 년 동안 내 인생을 바꾸었고 단 몇 시간 만에 여러분에게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요리사, 교사, 트래블 채널 프로그램 ‘Bizarre Foods’ 프로듀서 앤드류 짐먼(Andrew Zimmern)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 종류와 범위와 규모만 다를 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누구에게나 있다.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 야생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부터 주말마다 즐기는 테니스 시합에서 한 번은 이기는 것, 책을 많이 읽고 술을 적게 마시는 것까지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 현실이 되기보다 그저 꿈으로 끝나는 일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바라고 소망하기만 할 뿐 그것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까? 세계적인 브랜드 전략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영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위대한 예술가나 발명가만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영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누구나 갖고 있는 상상력과 참신한 생각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극제인 뮤즈가 있다면 소박한 목표부터 인생을 바꿀 거대한 목표까지 전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를 대화를 나누듯 친근하고 유머 가득한 말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리고 음악, 정치, 비즈니스,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들을 토대로 영감을 일깨울 수 있는 여섯 가지 핵심 기술을 제시한다.

자신의 삶은 직접 만들어가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리더다. 번듯한 명패나 명함에 적힌 직함이 없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에 따른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경험한다. 저자는 리더가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자기 자신은 물론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도록 해야 하며 어떤 정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주는 것이다. 영감을 받을 때,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무엇이든 시도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꼭 하고 말 거야,’ 라는 다짐이나 소망, 꼭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감만으로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대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보는 대신 일단 시도해보게 만드는 그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흔히 영감이라고 하면 천재적인 예술가나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만이 가진 일종의 재능이라고 여기지만,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영감을 일깨우는 능력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학습하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정서적으로 강렬한 무언가를 느끼고, 열정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중요한 과정은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유레카!’ 라고 외칠 수 있는 순간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고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찾아온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왜 틀렸는지 지적하고, 위트와 통찰력이 넘치는 설명을 통해 우리 모두가 팀과 가족, 조직, 자기 자신의 뮤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유능한 뮤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치를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대신 심장이 두근대는 감정, 상상력을 붙잡고 특별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영웅 만들기

1부: 영감의 이점

1장: 신기한 방법

2장: 머리에도 심장이 있다

3장: 영감의 이점

4장: 뮤즈를 잊지 마라

5장: 과학!

2부: 영감을 일깨우는 법

6장: 첫 번째 기술 - 망상을 즐겨라

7장: 두 번째 기술 - 목표는 행동이다

8장: 세 번째 기술 - 드러내고 휘저어라

9장: 네 번째 기술 - 음악처럼 말하라

10장: 다섯 번째 기술 - 사랑, 진짜 사랑

11장: 여섯 번째 기술 -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

부록: 뮤즈를 활용하는 30일 계획

맺음말: 미니 뮤즈

<저자 소개>

마이클 파누엘(Michael Fanuele)은 세계적인 마케팅 전략가로 캐딜락, 유니레버 등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컨설팅 업체 ‘Talk Like Music’의 창립자 겸 CEO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VIRTUES FOR THE APOCALYPSE
가제 : 종말의 시대와 다시 찾는 선의 의미
저자 : Amy Peterson
출판사: W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5월
분량 : 50,000-60,000 단어
장르 : 인문



*** 출판사 4곳의 경매를 거쳐 출판 계약 체결**

*** 젊은 신도들이 떠나가는 기독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보수주의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희망을 제시한 책**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의 미래,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세계 정세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사람들은 그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진보주의자들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보수주의자를 자처한 무수한 사람들이 정통 보수주의와 크게 어긋나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통탄했다. 특히 기독교가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보수주의 사회에서도 전통적인 도덕관과 가치관을 고수하며 도덕적 다수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 수준이 의심되는 대통령이 등장한 후 큰 갈등과 내분을 겪고 있다. 어릴 때부터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라고 배운 것들을 주저없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해버리는 지도자와 스스로를 정통 보수주의자라 칭하면서 미덕 혹은 선의 의미와 정의를 뿌리째 뒤흔들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보수주의자들의 분노와 혼란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복음주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종교 활동에 매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도덕적 다수파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러한 분열로 인해 퇴색된 선의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지금은 어린 시절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미덕이 거의 사라진 시대가 되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었던 것들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 의미가 퇴색되고 왜곡되었으나 아직은 바로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종교 생활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던 독실한 밀레니엄 세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종교를 격렬하게 비난하며 떠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위선과 거짓에 질려 교회를 떠나고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들 역시 갈 곳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 길을 찾기 위해 저자는 나면서부터 배운 도덕률을 모조리 해부해서 현 시대에 맞게 다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여성이자 엄마로서, 그리고 보수적 복음주의 기독교에 관해 잘 알고 여전히 종교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이 도구 혹은 무기처럼 휘두르는 미덕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입맛대로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잘못된 도덕관을 토대로 행사한 결과를 국민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저자는 자의로 혹은 타의로 미덕의 파괴 앞에서 눈 감아버린 이들의 선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안다면 선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길도 열린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목에도 포함된 아포칼립스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숨겨진 것,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발견되고 공개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방송이 세속적이라고 경고하던 사람들이 폭스 뉴스 같은 채널에서 제멋대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환호하고, 행동과 정신을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고 엄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고 외도를 하고도 자랑스레 떠벌리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중심을 잡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의미 있는 책이다. 저자가 오랜 세월 직접 느끼고 깨달은 사실들이기에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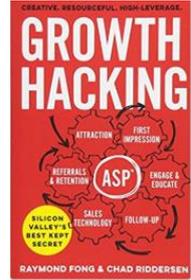
<목차>

1. 머리말: 미주리 주 브랜슨
2. 선
3. 친절함
4. 순수성
5. 환대
6. 탄식
7. 검소함
8. 희망
9. 진실
10. 권한
11. 믿음
12. 결론: 맛보고, 보아라

<저자 소개>

에이미 피터슨(Amy Peterson)은 저술가, 편집자, 교육자로 활동해 왔다. 첫 번째 저서 『DANGEROUS TERRITORY』는 약 5천 부가 판매되고 큰 호평을 받았다. 기고 활동으로 푸시카트 상(Pushcart Prize)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제목 : GROWTH HACKING
가제 : 성장 해커
저자 : Raymond Fong, Chad Riddersen
출판사: Lioncrest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분량 : 204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 *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꼭 필요한 마케팅 이론과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공한 책' -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마케팅 교수, 아이라 칼브(Ira Kalb)
- * '사업의 성장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사업가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유아용품 업체 Lollaland 소유주, 한나와 마크(Hanna & Mark)

누군가 로또에 당첨되어 하루 아침에 수십 억대 부자가 됐다는 뉴스보다 사업가들을 더 들뜨게 만드는 뉴스가 있다. 누구도 떠올리지 못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멋진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단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성공을 일궈냈다는 이야기는 이제 막 창업을 한 스타트업부터 시대에 뒤쳐지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황을 재정비하려는 업체까지 모든 사업가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가상현실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2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무려 1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한 '오쿨러스'의 20대 창업자처럼 모두가 경탄할 만한 성공은 대체 어떻게 해야 그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실제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경제 흐름에 따라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급변하는 판매고 때문에 불안한 현실을 마주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꿈꾸었던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삶은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을 뿐인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컨설턴트로 활약해온 두 저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차원이 다른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성장 해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시간도 쫓기는 상황에서 놀라운 창의력과 첨단 기술을 잘 조합해서 정체되고 하락세에 접어든 사업을 성장시킬 길을 찾아내는 것, 고도의 성장에 오롯이 초점을 맞춘 마케터가 바로 두 저자가 말하는 성장 해커다.

단 시간이 입이 썩 벌어질 만한 성공을 거둔 기업의 사례를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실리콘 밸리라는 사실에 주목한 두 저자는 엄청난 속도로 거대한 성공을 이룩한 업체들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판매 프로세스 자동화(ASP™)'라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모든 사업체가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을 통해 이미 검증된 성장 절차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 프레임워크는 사업가 모두가 제각기 보유하고 있지만 꺼내서 활용하지 못한 성장 해커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투자자와 사업가를 직접 대면 시키는 ABC 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샤크 탱크'에도 소개되며 수많은 업체가 실제로 큰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했다고 밝힌 ASP™는 두 저자가 기술 업계에서 일한

경험과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성장의 핵심 동력을 결합시킨 결과물이다. 실리콘 밸리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사례의 대다수가 기술 업체인 만큼 다른 분야의 사업가들은 자신들과 무관하거나 적용 불가능한 전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저자는 기존의 사업 방식을 혁신하고 성장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ASP™의 기본 원칙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사업의 큰 도약을 위해서는 무작정 더 오래, 힘들게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그럴지 않아도 부족한 자원을 쪼개고 무리하게 끌어 모아서 직원을 늘리고 손해를 감수해서는 안 되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로 감당 못할 투자에 모든 것을 걸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사업가들이 빠지기 쉬운 이 같은 악순환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꿈꾼 행복과 자유로운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0.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장 해커’가 있다

1. ‘판매 프로세스 자동화(ASP™)’의 구축
2. 끌어당김
3. 첫 인상
4. 관심 갖기, 교육하기
5. 후속 조치
6. 영업 기술
7. 위탁과 보유

결론

<저자 소개>

레이먼드 풍(Raymond Fong)은 하비 머드 칼리지에서 엔지니어링 석사 과정을 마치고 우주산업 분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다. 이후 마케팅 분야에 뛰어들어 컨설팅 업체 ‘Deviate Labs’를 공동 설립, 운영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업가들과 일해 왔다. 채드 리더센(Chad Riddersen)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컨설턴트, 투자가로 일하다가 사업 성장을 돕는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다. ‘Deviate Labs’를 공동 운영 중이다.

제목 : X-PLAN PARENTING
가제 : 10대 자녀를 위한 X플랜
저자 : Bert Fulks
출판사: Howard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1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교육



- * '자녀를 믿고, 자녀와 파트너가 되고,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책' - 『Sky Lantern』의 저자 맷 미칼라토스
- * '기독교 원칙을 따르지만 더 광범위한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다수 포함된 가이드' - 「라이브러리 저널」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덩치도 작아서 먹는 것, 가는 곳, 하는 일들을 거의 대부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던 시기가 지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최대한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해보려는 아이와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여서 아이를 위해 그 도전을 막으려는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모는 막으려고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리고 한창 반항심과 도전 정신이 최고조에 이른 십대 청소년을 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이와 등지지 않고 잘 지내면서도 아이를 위험에서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늘 고민한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였던 저자는 수십 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만난 아이들과 중독 문제에 빠진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점들을 토대로 'X 플랜'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2017년 저자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조회수가 800만 회를 돌파할 만큼 화제가 된 이유는 도통 답을 찾을 수 없이 서로를 지치게 하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신뢰라는 열쇠로 푸는 방법을 저자가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X 플랜의 핵심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부모가 둘 중 어느 한 쪽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녀와 나란히 서서 가장 든든한 친구로서 아이가 반드시 겪어야 할 삶의 단계를 응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가 자신의 십대 아들에게 직접 적용해본 뒤 블로그에 처음 소개한 X 플랜은 '또래 압력'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SOS 신호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과 상담하던 중, 저자는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잘 알면서도 마약이나 담배, 술 등에 손을 대는 결정적인 계기가 또래 압력 때문임을 깨닫는다. 친한 친구들끼리 다 같이 하기로 한 일, 혹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금지된 무언가를 은밀하게 한다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범죄에 가까운 일이나 몸에 해로운 일에 억지로 가담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경험한다. 바로 이 때, 부모나 형제 등 가족 중 누구에게 문자메시지로 X 한 글자만 보내면, 연락을 받은 가족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 집에 큰 일이 생겼으니 바로 귀가해야 하며, 상

황이 급해서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통화가 끝나면 아이는 친구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연락 받은 가족은 최대한 빨리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 X 계획의 핵심은 데리고 나온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캐묻지 않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원할 때만 원하는 범위 내에서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는 꼬치꼬치 물어보거나 이후 아이가 또 그런 일에 빠지지 않는지 감시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자녀의 일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직성에 풀리고 아이를 위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X 플랜이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따져 묻지 않는 원칙을 지킬 때 아이와 부모 사이에 비로소 끈끈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세상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기회임을 잊지 않아야 하며, 불편하고 위험하고 싫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더욱 자신 있게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통제와 지시보다 지지와 격려가 훨씬 중요한 이유를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설명하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구성요소가 아닌 개별적인 한 인간임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양육 방법을 진정성 있게 소개한 책이다.

<목차>

X 플랜 / 자녀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xplan)

머리말. 위대하지만 두려운 등반

1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다

1장. 신뢰가 중요한 이유

2장. 아이들이 가야만 하는 길

3장. 깊이 사랑한다면 실패하도록 두어야 한다

4장. 아이는 부모의 트로피가 아니다

2부. 음, 어쩌면 여러분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5장. 우리가 만든 피해

6장. 깨지지 않는 양육 방식

7장. 자극하지 마라

8장. 나와서 같이 놀아라

3부. 어려운 일 (9-13장)

4부. 의도가 들어간 순간, 큰 X가 필요하다 (14-17장)

<저자 소개>

버트 풀크스(Bert Fulks)는 30여년 간 심리학자로, 세계사 교사로 아이들과 만났다. 비영리 기독교 단체 'Empty Stone Ministry, INC'의 창립자 겸 공동 책임자를 맡고 있다.

제목 : GADGET CONSCIOUSNESS

가제 : 기계장치와 인간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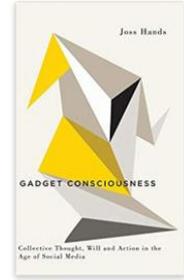
저자 : Joss Hands

출판사: Pluto Press

발행일: 2019년 2월 7일

분량 : 208쪽

장르 : 기술



- * ‘인간의 성찰과 행동하는 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깊은 사고와 이론적인 기민함이 담긴 글로 제시한다’ - 런던 정치경제대학, 닉 쿨드리(Nick Couldry)
- * ‘저자는 정치와 무관하고 사소해보이는 ‘기계장치’라는 컨셉을 채택하여 가장 최근에 나타나는 자본주의자들의 기술 집착증은 물론 ‘기계장치 공산주의’라는 불경스러운 극단적 실험주의를 탐색하는 매혹적인 수단으로 바꾸어놓았다’ -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 닉 다이어 위드포드(Nick Dyer-Witford)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잠들 때까지 우리가 기계장치를 얼마나 만지작거리고 활용하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울 정도다. 아침에 잠은 스마트폰 알람이 깨워주고, 하루 스케줄과 할일 리스트도 앱으로 관리한다. 저녁에는 스마트 TV로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해서 보거나 유튜브를 돌아다니며 영상들을 보고, 패드나 탭 등의 기기로 전자책을 읽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작은 기계장치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하나로 연결시키고 나이, 성별,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다.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전화를 걸고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자그마한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2007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각기 다른 기계로 이루어지던 그 모든 기능이 하나의 장치에 담기고 심지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가볍게 밀어내는 동작만으로 가만히 앉아서나 길을 걸으면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기기로도 통칭되는 작은 기계장치들은 없던 시절이 잘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 편리한 도구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대인의 집착에 가까운 애정은 서로 유대를 맺는 인간의 특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정치적인 표현과 참여,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저자는 이 작은 장치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이 책에서 상세히 고찰한다.

인간의 의식은 지각력과 의지로 구성되는 개개인의 독자적 의식과 계급에 대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여겨져 왔다. 저자는 소형 기계장치의 등장 이후 이 두 가지 의식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탐색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의 유대가 형성되는가에 관한 분석과 함께, 저자는 과

거 공산주의와 현대 소셜미디어 시대의 집단적 사고와 집단적 의지 및 행동의 놀라운 공통분모를 지적한다. 더불어 미래에는 이 같은 독특한 유대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예측한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1장에서는 ‘기계장치’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왜 ‘디지털 기기’라는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포괄할 수 없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2장에서는 기술 자본주의 프레임과 기계장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우리가 기계장치를 사용할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한다. 뇌와 의식, 의도, 자아와 자기 인식의 관계를 뇌 과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 기계장치로 형성된 의식구조가 개인적, 존재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사안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저항, 투쟁, 반란에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고, 마지막 6장에서는 소형 기계장치로 빚어질 미래의 암담한 모습과 조금은 희망적인 모습을 예측한다.

가상 세계에서 단절 없이 모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드는 소형 기계장치가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의 기회와 함께 극단적인 고립과 여러 의미에서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낸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기계장치를 둘러싼 의문
2. 기계장치와 물질주의
3. 기계장치와 뇌
4. 기계장치와 의식
5. 기계장치와 행위
6. 기계장치와 미래

<저자 소개>

조스 핸드스(Joss Hands)는 뉴캐슬 대학교에서 미디어·문화학 선임 강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 is For Activism』이 있다.

제목 : THE NEUROSCIENCE OF MINDFULNESS

가제 : 신경과학으로 본 마음 챙김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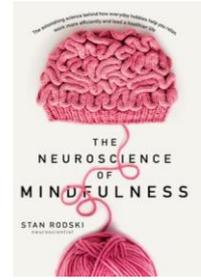
저자 : Stan Rodski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1월 1일

분량 : 217 페이지

장르 : 건강/과학



*** 마음 챙김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신체 건강의 개선 효과를 밝힌 책**

병이 나도 치료 방법은 고사하고 원인조차 몰랐던 시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다른 세상 일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현대인의 건강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백신이나 항생제로 쉽게 잡을 수 있는 병은 거의 사라졌지만 당뇨, 암, 비만, 심장질환 등 생활습관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병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질병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서서히 쌓이고, 쌓이는 동안 크게 티가 나지도 않는데다 뒤늦게 발견한다 해도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어 더 큰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다. 눈부신 기술 발전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황을 연구하고 파헤친 여러 시도를 통해 우리는 이런 생활 질환들이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먼 옛날에는 동물에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는 적들과 맞서기 위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경계하도록 기능하던 인체의 안전 시스템이 현대에 들어 고장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스트레스라는 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언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지도 가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끝없는 불안과 압박, 정신적인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마음 챙김' 명상의 효과가 다양한 분야의 의사, 치료사, 건강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되기 시작했다. 30여년을 정신의학자로 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치료해온 저자는 그림에 색칠을 하는 지극히 단순한 활동을 통해 잘못 배전된 뇌 회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뇌 과학의 매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 관심을 확장시켜, 마음 챙김으로 알려진 심리 안정 기법이 소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효과 뿐 아니라 치명적인 신체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뇌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물 밑 듯 파고드는 각종 스트레스 요인은 뇌가 알아서 불필요한 정보를 거르고 다시 안정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마음 챙김이 바로 이 과정에서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사고 패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면 면역체계 등 인체가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정신 기능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에서 인지과학자가 된 저자는 이 같은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쉽게 풀어서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인체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마음 챙김으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밝히고, 이 과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되며 1부부터 3부까지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과 효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4부부터 6부까지는 마음 챙김을 토대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소개한다. 당장 드러난 증상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탄탄한 회복력을 구축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법을 과학적으로 밝힌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1부: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음 챙김이 필요한 이유

마음 챙김은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 챙김과 에너지 레벨

2부: 마음 챙김의 과학적 특성

‘이 책을 정말 읽어야 하나?’

간략히 정리한 뇌 과학의 역사

뇌와 ‘딥(deep)’ 상태

의식과 기억

뇌의 균형과 연결

3부: 일상생활 속의 마음 챙김 (1-7장)

4부: 마음챙김에서 건강으로: 몸과 마음의 연결 (1-3장)

5부: MBC의 기능 (1-4장)

6부: MBC를 활용한 건강 관리법 (1-7장)

<저자 소개>

스탠 로드스키(Stan Rodski)는 호주에서 뇌 기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로 활동 중이다. 30년 이상 정신의학자로 일하다가 최근 들어 뇌과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